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수시 과제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김은희
수탁 과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	이상민
	건축설계용역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용역	염철호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유광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상규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차주영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정책 기획·관리 연구	김은희
	201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	이상민

수시과제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건축물 준공 이후 실내건축공사 과정에서, 내부 칸막이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불법 건축재료 사용에 따른 화재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내부 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어서 2014년에는 실내건축의 정의, 구조 및 시공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기획하여 관련 법 규정에 대응하는 실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개정된 「건축법」의 실내건축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분석, 법제도 조사, 실내건축 관련 해외 기준 파악, 실내건축 구조 및 시공기준 마련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내건축의 경우 마감재료와 설치물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여 현행 「건축법」 및 「소방법」의 건축물 용도와 마감재료 기준 및 시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본 연구는 「건축법」이 개정된 지난 5월 이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나아가 실내건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은희

수탁과제

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등 물리적인 부문에 대한 DB를 수집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현황이나 주거특성, 생활행태 등 주민에 대한 조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이후 40여 년 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지원을 위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진 주민특성과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특성조사를 벌여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지원받는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민지원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간 정책결정 시 고려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를 보완함은 물론이고 맞춤형 주민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해당 주민의 정책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2 건축설계용역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용역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해 온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제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에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부재한 실정으로, 설계를 우수하게 수행한 자를 우대하거나 미흡하게 설계한 자를 불이익 조치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자의 노력을 유인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만족하는 설계품질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자문 응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초기 기획단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설계발주 이후의 설계용역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공공건축의 설계품질 제고나 효율적인 사업시행 유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달청이 발주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수행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설계용역 평가와 관련한 법제도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분석하고, 현행 건축설계업무의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자·시공자·감리자·발주자 등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염철호

3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미국·네덜란드·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국가의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무부도 범죄불안에 떨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무형의 환경조성과 범죄발생 시 체포·교화하는 다양한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무부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모든 지역 구성원의 법질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범죄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과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의 시범사업 대상지 중 마포구 도화동, 영등포구 대림동, 노원구 공릉동 등 3개 사례지역에 초점을 둔다. 마포구 도화동의 경우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인근에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외지인의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범죄 가능성이 높다. 영등포구 대림동은 중국 국적의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민족 간의 폭력범죄가 빈번하고, 지역주민들이 범죄 노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은 소공장,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서민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재래시장이 있으며, 특히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공간 환경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안에 따라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 이후 주민의 범죄 불안감의 변화, 만족도의 변화 등 계획안의 성과를 분석한다.

유광홍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건축기본법(2013.3.23.시행)」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4.11.29.시행)」 제정 및 시행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통합된 계획으로, 충청남도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 본 계획은 세종시청의 발주로 올해 8월에 착수, 2015년 7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12개월간 진행될 이번 계획을 통해 세종시 건축·공간 환경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세종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작기 때문에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큰 틀의 건축정책 방향이나 실천전략과 함께 계획 목표연도인 5년간 실제 추진 가능한 시책 및 사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그 외 지역의 개별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최근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시책,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이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종시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규

5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경관관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자체 경관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8월 개정된 「경관법」에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경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국토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국토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향후 5년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단위 경관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경관관리 수단으로 경관협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관협정제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관리 방식으로, 지역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미미한 상황으로 경관협정 시범적용을 통해 제도에 대한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차주영

6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정책 기획·관리 연구

신진 건축사의 건축설계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건축업계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설계공모 활성화 및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통한 건강한 건축설계시장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아이디어공모 및 수상(受賞)전을 시행하였고, 2014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정책 기획관리 연구'를 기획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사업에서는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 '대한민국 신진 건축사대상(大賞)'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신진 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신진 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2년과 2013년에 발굴한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4학년 이상의 대학생을 6개월간 연계시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건축사에게는 발굴 후 (인력)지원을, 대학생에게는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2014년 3월에 시작되어 내년 1월 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기존에 수행한 사업과 금년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김은희

7 201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의 법적 지원기반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에 비해 시범사업을 확산·보급하기 위한 성과분석이나 홍보 등이 부족하였다. 이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발주로 약 10개월의 연구에 착수, 2015년 1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시범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참여 관계자 설문조사 등 이미 추진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산·보급하기 위한 홍보방안(사업설명회, 홍보책자, 워크숍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의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과 신규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선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6년째 진행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앞으로도 건축·도시·국토공간의 질과 품격에 대한 가치인식을 고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세부 실천방안 제시, 민간 전문가 조직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유도방안 마련, 관련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의 통합적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2014 공공건축 국제세미나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 체계 개선' 개최

국토교통부, 조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2014 공공건축 국제세미나'가 11월 18일(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공건축 관련 공무원과 연구자, 공공건축 전문가 등 약 2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2014 공공건축 국제세미나는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 앞서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공공건축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표인 '미국 PBS의 고품격, 고효율 공공건축 디자인을 위한 정책과 실천'(Karen Handsfield, 미연방 조달청 공공건축서비스국 설계·시공과 프로그램 애널리스트)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우수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PBS(Public Buildings Service)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단조로운 연방정부 청사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Design Excellence Program과 2000년대 초 지역사회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Good Neighbor 프로그램 등, PBS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바람직한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인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 지원체계와 관련 제도'(타니하나 노리야스, 일



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계획과 관청시설계획추진관)에서는 일본의 「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발표하였다. 기획의 합리화를 위한 영선계획서 검토제도,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관청부서연락회의 등 공공건축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와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 번째 발표인 '한국 조달청의 공공건축 지원체계'(성기석,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 사무관)에서는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경험이 없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의 특화된 사업관리 기법을 통하여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달청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와 발전 방향'(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

공건축지원센터장)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였다.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공공건축의 기획을 강화하고, 각종 자문응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수립 등을 통해 부족한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수정 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연구본부)의 진행으로 호리 나오히시 보전지도실장(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계획과), 이정면 대표(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김지엽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조영섭 팀장(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 맞춤형서비스(TF))와 각 발제자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기획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현재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는 등 바람직한 공공건축 지원체계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토론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1월 4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건축문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 지향점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건축계와 PD, 기자 외에 문화예술계 등 다방면의 저명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는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과제’ ‘문화로서의 건축의 확장성’이란 주제하에 각각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김광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가 전체 좌장을 맡았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건축계의 박인석 교수(명지대 건축학부)를 비롯해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요 건축물 설계자로 유명한 건축가 구승희 대표(크래프트), 2013 대한민국 신진건

축사 대상을 받은 최재원 공동대표(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가 참석하여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건축계 3명의 패널은 중소 규모 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통해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며, 특히 지역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직된 발주제도의 개선과 건축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KBS 인기프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노홍석 대표(레드카펫 필름, 前 KBS PD), 이은주 기자(중앙일보 문화부)와 선셋장항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지낸 최정환 대표(공간문화센터)가 언론·문화계를 대표하여 ‘문화로서의 건축의 확장성’이란 주제로 청중과 함께 열린 토론을 펼쳤다. 2부의 패널들은 문화로서 건축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그간 언론계의 경제·산업적 접근을 인정하며, 건축문화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해 건축계와 언론·문화계 등이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건축물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날 대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좌장인 김광현 교수는 “건축문화는 건축가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며 “건축이 아닌 곳에서도 나타나고, 작은 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건축이고, 이것이 곧 건축가의 영역을 넓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공공기관의 건축문화 관련 부서 공무원, 건축사, 대학생, 일반 시민 등 2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2014
올해의 한옥대상·한경현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전시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한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한옥 분야의 발전을 위한 행사로 준공·계획·사진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준공 부문 3개와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4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부문별 대상에는 준공 부문의 경우 현대재료와 기술을 한옥에 훌륭하게 접목한 올해의 한옥대상 '한경현'(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형우·최홍종 설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계획 부문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전통한옥으로 재해석하여 제안한 '모두의 사랑채, 국회의사당(전통문화대학교 김종범·강치호·조보경·문지혜)'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사진 부문에서는 창원 성흥사의 한옥 지붕선과 담장을 산의 능선과 조화시켜 카메라에 담아낸 '자연과의 균형(표수환)'이 선정되었다.

올해 한옥공모전은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준공 부문에서는 성당의 사랑채와 상업시설·종갓집, 계획 부문에서는 국회의사당·전통시장·버스정류장·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통하여 한옥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 ‘실험적인 한옥짓기’ 개최

2014년 auri 국가한옥센터 제3차 한옥포럼이 지난 9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한옥포럼은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 아래 편리하고, 오래가며, 실험적이고, 알뜰한 한옥짓기를 주제로 총 네 차례가 계획되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실험적인 한옥짓기’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정구 소장(구가도시건축)이 ‘한옥을 생체이식하다’를 주제로 현대의 기술과 공간을 활용하여 한옥을 변화시킨 ‘판교 함양재’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옥이 오브제로서가 아닌 구조와 형태 등 본질을 유지하면서 서양식 목조주택과 결합하여 어떻게 공간을 형성하는지, 새로운 시도를 행함에 있어 건축주와 어떤 의사소통을 진행했는지 등 작업 전반에 걸쳐서 한옥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운식 대표(창의건축연구소)는 ‘한옥, 철골로 거듭나다’를 주제로 최근 요구되고 있는 건축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옥에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창의한옥’에 대해 발표하였다. 철골뼈대에 목재 옷을 입혀 한옥의 전

통적 모습을 살리면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의 면적을 증대시키면서 구조의 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관심을 끌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은 ‘신기술이 한옥을 바꾼다’를 주제로 한옥기술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신기술의 동향을 소개하고 한옥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한옥의 제도적 정의에 의해 한옥기술을 크게 재료 및 환경기술, 구조 및 시공기술, 디자인기술로 나누고, 각각의 기술 변화에 따라 변모되는 한옥과 모습과 이에 반응하는 수요자의 특성을 통해 향후 한옥 신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용훈 교수(한경대학교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황두진 대표(황두진건축사무소), 정연상 교수(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종남 문화재수리기술자, 김용수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옥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대의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한옥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 ‘알뜰한 한옥짓기’ 개최

2014년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이 지난 12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네 번째로 개최된 마지막 포럼은 ‘알뜰한 한옥짓기’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김장권 대표(복촌HRC)가 ‘한옥 가격은 왜 다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옥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건축 비용에 영향을 주는 한옥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실제 공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한옥 가격을 낮추는 시도와 함께 한옥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문경 대표이사(주)피데스하우징)는 전라남도 장성 황룡마을에 건축한 한옥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 한옥 시공 및 공사비 절감 방안’을 발제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시행한 궤립조사를 통해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면서 경제적인 평면구성을 제시하였고, 시공 단계에서 현대 한옥기술의 공법 적용과 철저한 공정 관리, 대량 발주에 의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한옥 공사비 절감 방안이 가능함을 소개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성훈 본부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정책연구본부)은 ‘한옥건축의 비용구조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옥 공공건축물의 건축비용과 한국감정원에

서 제공하는 한옥주택 및 목조주택의 신축단가를 공종별로 비교하여 건축비용의 증가 원인과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향후 한옥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비의 명확한 비용구조와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재수 교수(한라대학교 건축학부)를 좌장으로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도경 교수(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이강민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윤정 대표(은평한옥마을공동체), 정태도 도편수(참우리건축협동조합 이사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한옥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옥의 전통적 가치 보전을 위한 가격 다양화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요자 및 공급자의 입장에서 실질적 한옥건축 비용에 대하여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총 네 차례 걸쳐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14년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201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제2차 건축도시 정책연구 네트워크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대구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건축도시 정책연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 정책연구 네트워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축도시 정책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지난 5월에는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제1차 행사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전면 개정된 「경관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첫째 날에는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대구 중구 진골목 일대 답사가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차주영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3개 기관의 지역발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각 지역의 경관 관련 사업 및 실행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경관 관련 정책 현황과 경관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건축도시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건축도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2014년 11월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는 2013년부터 연구소 일반사업인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편성되어 공공건축 관련 기준과 제도 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 매뉴얼 및 단행본 발간 등의 연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활성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3일부터 법정센터인 공공건축지원센터로 단독 지정돼 공공건축 관련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예의 응답,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진흥법에 따른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의 정부기관뿐 아니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등 건축 관련 학·협회와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소속 PBS(Public Building Service), 일본 국토교통성 소속 관청영선부 등 해외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여 많은 성원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앞으로 국내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합리적 조성·관리를 위한 지원기구로서 공공건축의 합리적 조성에 기여하고, 향후 공공건축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